

#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 선정

### 남원시, 국가유산 야행·생생 국가유산 활용·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등 3개 분야

남원시는 20일, 국가유산청에서 실시한 2025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사업에 3개 분야(총사업비 6억8천만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유산 야행, 생생 국가유산 활용사업,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총 3건이며, 사업은 국가유산청의 대표적인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국가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함께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는 기회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획으로 시설지원이 아닌 순수한 국가유산 활용에 관한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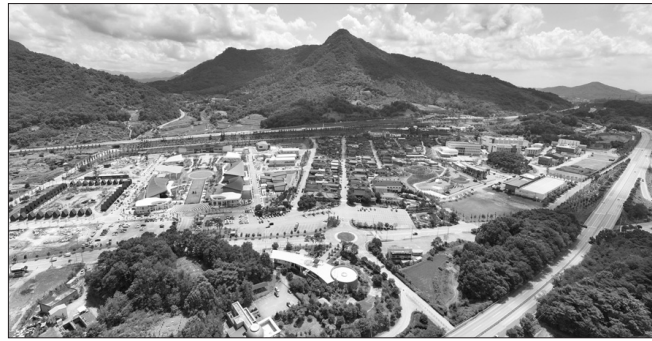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국가유산 야행(562.5백만원)은 '광한청허부 달나라 궁전으로 초대'라는 주제로 광한투원을 활용한 8夜の 야간문화 프로그램이며, 생생 국가유산 활용사업(사업비 50백만원)은 '만복사지 오감 상상마당'이라는 주제로 금오신화 만복사 저포기의 배경이 되는 만복사에서 이야기 속 상상을 그려내고 오감으로 즐기는 체험형 융복합 창작·제작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유산의 가치를 문화예술로 경험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67.5백만원)은 '천년의 향기 실상사'라는 주제로 전통산사의 국가유산 가치와 의미를 체험·공연·답사 고품격 산사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역별 특색있는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자 노력해온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2025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국가유산이 핵심 관광자원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의 '미생물 농생명 산업 지구'가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 산업 지구'에 최종 선정되면서 미생물 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에 탄력을 받게 됐다.

## 미생물 산업 중심지 도약 탄력

### 순창군, 전북자치도 '농생명 산업 지구' 최종 선정

순창군의 '미생물 농생명 산업 지구'가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 산업 지구'에 최종 선정되면서 미생물 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에 탄력을 받게 됐다.

농생명 산업은 전통적인 농업에 첨단 기술을 접목해 그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사업이다.

이번 농생명 산업 지구 선정에는 12개 시군에서 19개 지구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그중 7개 지구만이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순창군은 '미생물 농생명 산업 지구'가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 산업 지구'에 최종 선정되면서 미생물 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에 탄력을 받게 됐다.

농생명 산업은 전통적인 농업에 첨단 기술을 접목해 그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사업이다.

이번 농생명 산업 지구 선정에는 12개 시군에서 19개 지구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그중 7개 지구만이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혁신산업 중심형 중 미생물 선도지구로 지정되어, 미생물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신규 특화단지 조성 및 장류 특구 내 편의시설 확충 등에 있어 행정규제 완화와 국가예산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

현재 순창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5만 3천 3백여 개의 식용 미생물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50만 건의 유용 미생물과 생물자원을 보관할 수 있는 '유용 미생물은행'이 10월 중 개소를 앞둔 점 등 미생물 분야

에서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군은 미생물 산업의 미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미생물 관련 기업체 유치와 창업 지원을 위한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 지식 산업과 지원센터'를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 단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특히, 2030년까지 30개의 관련 기업체 유치와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3,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농생명 산업 지구 선정에 계기로, 미생물 관련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고, 창업을 지원하며, 연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나아가, 청년들을 위한 미생물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방소멸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N치즈축제 10주년 기념 이벤트 '호응'

### 임실군청 SNS 하반기 새단장... 오늘까지 치즈축제 사행시 이벤트

임실군청 SNS가 하반기 새로운 개편과 함께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임실N치즈축제 기념 이벤트를 실시,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재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4개 채널을 통해 이벤트를 전개 중인 가운데 댓글 150여 개가 올라오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등 풍성한 먹거리와 임실N축성치즈순금 행운 이벤트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등으로 더 특별하게 개최된다.

여기에 하반기에 선보이는 임실군청 SNS는 치즈축제의 실시간 정보뿐만 아니라 지역의 맛과 멋, 관광과 문화와 같이 다양한 콘텐츠 제공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존의 틀을 깨고 참신한 콘텐츠로 새단장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임실의 숨겨진 문화재와 지역사를 소개하는 '임실이야기' △임실군 대표 맛집,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는 '맛집! 멋집!' 등 관광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공식 유튜브인 임실엔TV는 △지역 농특산품을 활용한 요리 레시피를 짧은 시간에 공유하는 '임실카페' 등 트

랜드에 맞춘 콘텐츠를 선보인다.

또한 군청 홍보팀 왕유민 주무관이 합류하면서 신규 코너로 '홍보킹'을 신설, 임실의 다양한 매력을 짧은 영상으로 빠르고 재밌게 전달하는 '웃픈 콘텐츠'를 추가한다.

이번 개편 이벤트는 23일까지 진행되며, 참여 방법은 임실엔TV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임실군 SNS 채널 게시물에 '치즈축제'를 주제로 한 사행시를 올리고, 게시글을 공유하면 된다.

군은 이벤트 기간 작성된 사행시 댓글 중 총 100명을 추첨하여 임실치즈 핫도그를 제공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9월 27일 임실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게시물에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청 SNS가 지역 축제와 관광지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며 "올해 10주년을 맞은 임실치즈축제가 많이들 오셔서 축제장을 가득 메운 천만송이 국화꽃 향연과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를 실컷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기능보강 공사 완료 '청소년 문화의 집' 재개관

남원시는 지난 9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의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재개관을 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문화의집은 2000년에 개관해 줄곧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자 소통의

장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청소년수련시설로, 최근 여성가족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서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으로 귀감이 되는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5억원을 투입하여 전면 리모델링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시설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관하며 매주 월은 휴관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625-331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용자금 지원

남원시가 자립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인들을 위해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용자금 90여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귀농희망자 및 재촌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18명, 하반기 16명을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을 저금리(연 1.5%)로 장기융자(5년 거치 10년 상환)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자금의 경우 농기구입, 하우스 신축, 농기계 등 가구당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며 주택구입은 최대 7,500만원 한도 내 주택구입 및 신축을 지원한다.

남원시는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귀농인,

최종 선정된 귀농인들은 대출금 수령 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상환 기간인 15년 동안 사업 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장(농지·주택 등)을 매각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월, 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대출금 회수, 연체 이자 부과, 농림사업자금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임실군, 토지분할 절차 간소화 서비스 시행

임실군이 토지분할 허가부터 분할 및 지적 공부 정리까지 한번에 처리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토지분할 신청 시 피위임자가 업무를 처리할 경우 △측량을 신청하는 기관(한국토지정보공사)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를 신청하는 부서(△토지이동(분할) 정리)를 신청하는 부서가 서로 달라 위임장을 세 번 작성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군은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측량 접수 창구에서 처음 한 번만 통합위임장을 작성 제출하면 토지분할에 관련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피위임자)이 토지분할 신청 시 위임장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위임장' 작성 한 번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1억5300만원 부과

순창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3만 1,287건에 대해 11억 5,300만원의 고지서를 발송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했는데, 이는 2024년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문의 경우 연세액 20만원 이하의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방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은행 ATM,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하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괄난 항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틀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